



# 쌀밥이 사라졌어요

## BBUA the Rice

———— **Fantasy Story For Children** ————  
**KOREAN FOOD + MUSIC + GALAXY**

STORY/SYNOPSIS

[WWW.BBUATHERICE.COM](http://WWW.BBUATHERICE.COM)

# STORY / SYNOPSIS

상상 우주속 한식나라의 인기스타였던 쌀밥 뿌아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게되자 한식나라를 떠나버린다.

음악으로 가득 찬 하모니오스별에서 뿌아는 친구의 소중함과 조화로움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이유로 하모니우스 별을 버리고 떠나는 오선지 루루를 설득하여 하모니오스 별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삶이란 나만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낸 동화같은 이야기.

나는 떠날꺼야!

상상 우주속 가장 밝은 "하모니오스별"에 사랑을 듬뿍받는 하얀 쌀밥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기로 결심한다.

동글동글하고 모험심 많은 쌀밥의 이름은 "뿌아". 매일 모든 자연과 사람들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다.

그런 뿌아에게 사람들이 예쁜 친구들인 노란 콩나물, 파란 애호박 등 온갖 색의 친구들을 데려오며, 뿌아는 더 큰 그릇에 담겨 비빔밥의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었지만, 더 이상 자신이 돋보이지 않아 슬퍼졌고, 떠나기로 결심한 것.

그렇게 떠난 뿌아는 하모니오스별을 음악으로 채워주는 거대한 악보인 오선지 루루 위를 걸으며 상상 우주 속을 방황하다가, 몰래 뒤따라온 "쉽게 잠드는" 느림보 파란 애호박 오동이와, "빠르게 날아다니는" 엉뚱한 빨간 당근 캐로티와 마주치며 조화로운 오선지 위 음표들을 어지럽히는 사고를 치게된다.

겨우 화해하고 함께 가던 뿌아 일행은 화려한 음표들의 배경으로만 보여지는 자신의 역할에 슬퍼하며 떠나는 오선지 루루로 인해 우주속 미로로 마구 던져진다. 형체가 변하고 마구 흐트러지는 혼동과 어둠이 찾아온 하모니오스별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음표들도 떠나가고, 아무 소리 없이 슬픔이 찾아온 하모니오스별.

떠나버린 오선지 루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뿌아는 함께 어울려야 더 행복하고 의미있는 조화로운 모습, 각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루루와 함께 다시 하모니오스별로 돌아온다. 하모니오스별은 다시 예전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게 움직인다.

쌀밥이  
사라졌어요!



Why did  
BBUA the Rice  
Go away?

"사람들은 이제 나만 좋아하지 않아.  
내가 없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거야"  
쌀밥 뿌아는 작은 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떠나가는 쌀밥을 발견한  
빨간 당근 캐로티와 파란 애호박 오동이는  
호기심에 몰래 뒤따라가기로 합니다.



총총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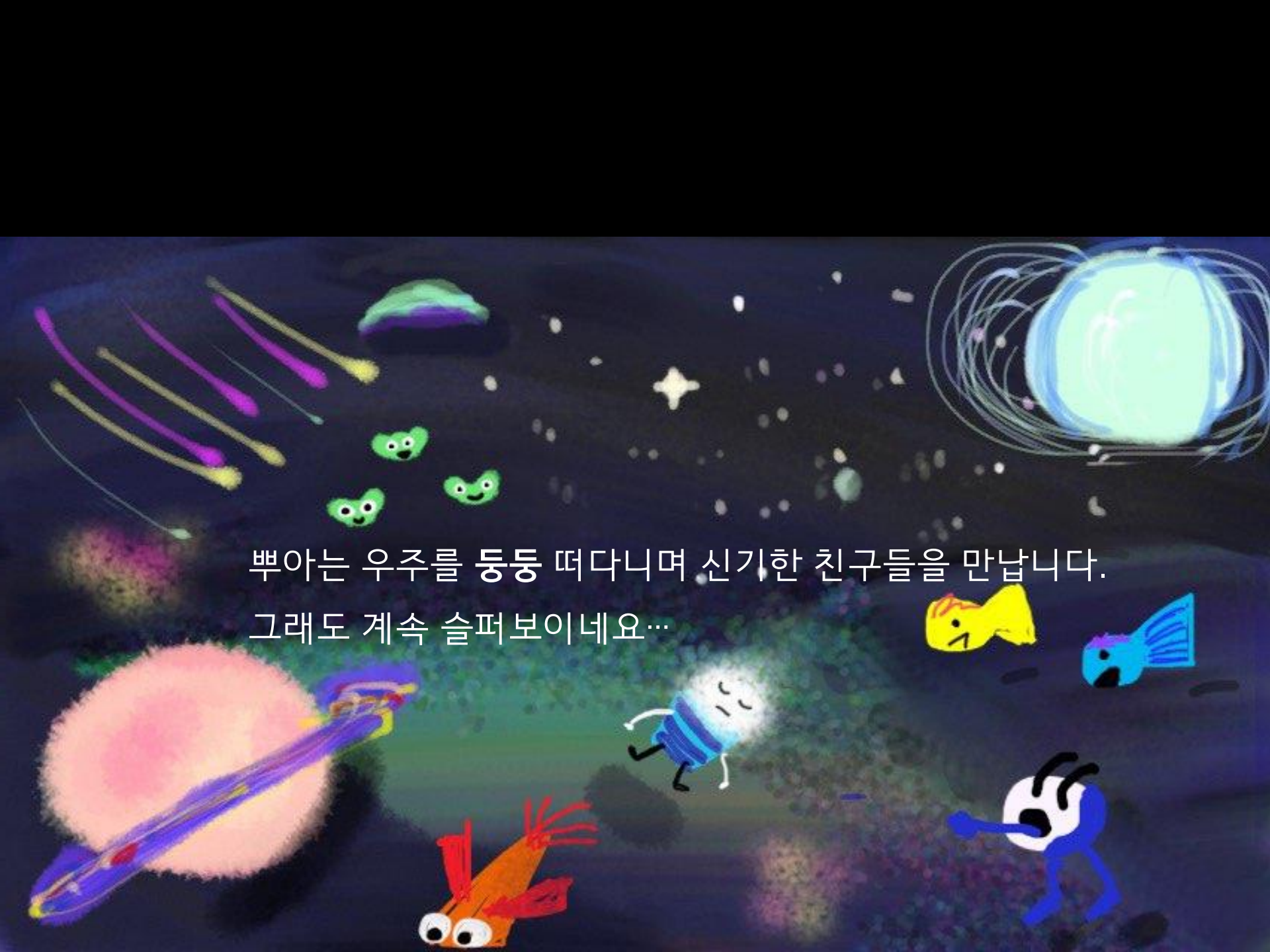
오동이는 쿵쿵 졸면서 걸어가고,  
몰래 따라 가는 것이 왠지 신나는 캐로티는 쓱쓱 날아갑니다.

뿌아는 예쁜 하모니오스 별을  
쓸쓸히 걸어갑니다.



A dark, atmospheric landscape painting. The scene is dominated by deep blues and purples, suggesting a night or twilight setting. A winding, light-colored path leads from the bottom center towards the middle ground. Along this path, there are three small, stylized figures: one at the bottom center, one slightly above it, and one further up. The background features rolling hills or mountains, rendered in soft, painterly strokes. In the upper left corner, there are some faint, abstract scribbles in light blue and purple.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re are some faint, abstract scribbles in light blue and purple. The overall mood is mysterious and contemplative.

‘뿌아는 도대체 왜 떠나고 있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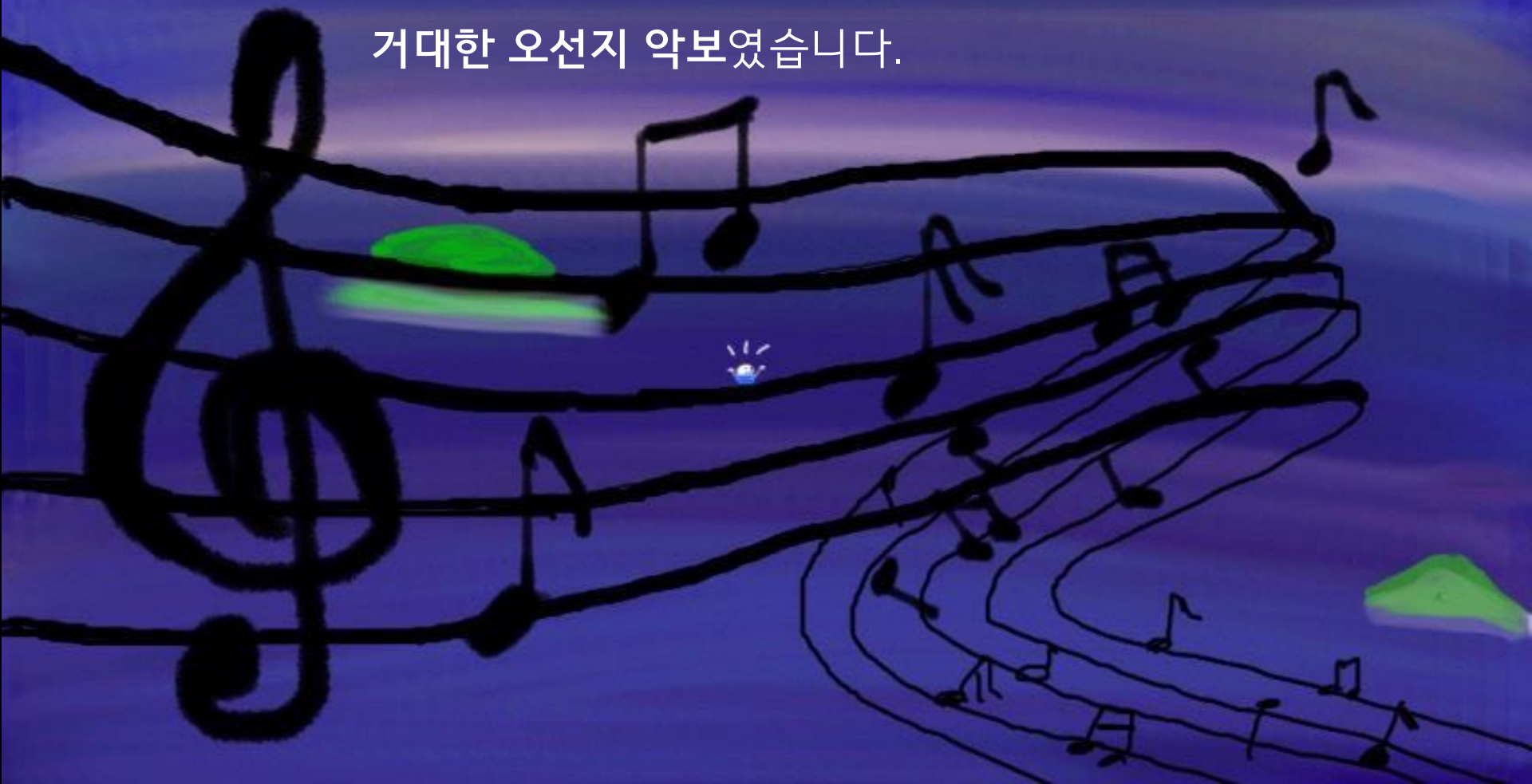
A whimsical illustration of a character exploring space. The character, a small white figure with a blue striped shirt and a sad expression, is floating in the center. To the left, a large pinkish-red planet is partially obscured by a purple comet streak. Above the character, several green, bean-like creatures with faces are floating. In the top right, a large, bright yellow sun or star is surrounded by concentric white lines. To the right of the character, a yellow fish-like creature and a blue fish-like creature are swimming. At the bottom, a red, shrimp-like creature with large eyes is visible. The background is a dark blue space filled with stars and various colorful comet strea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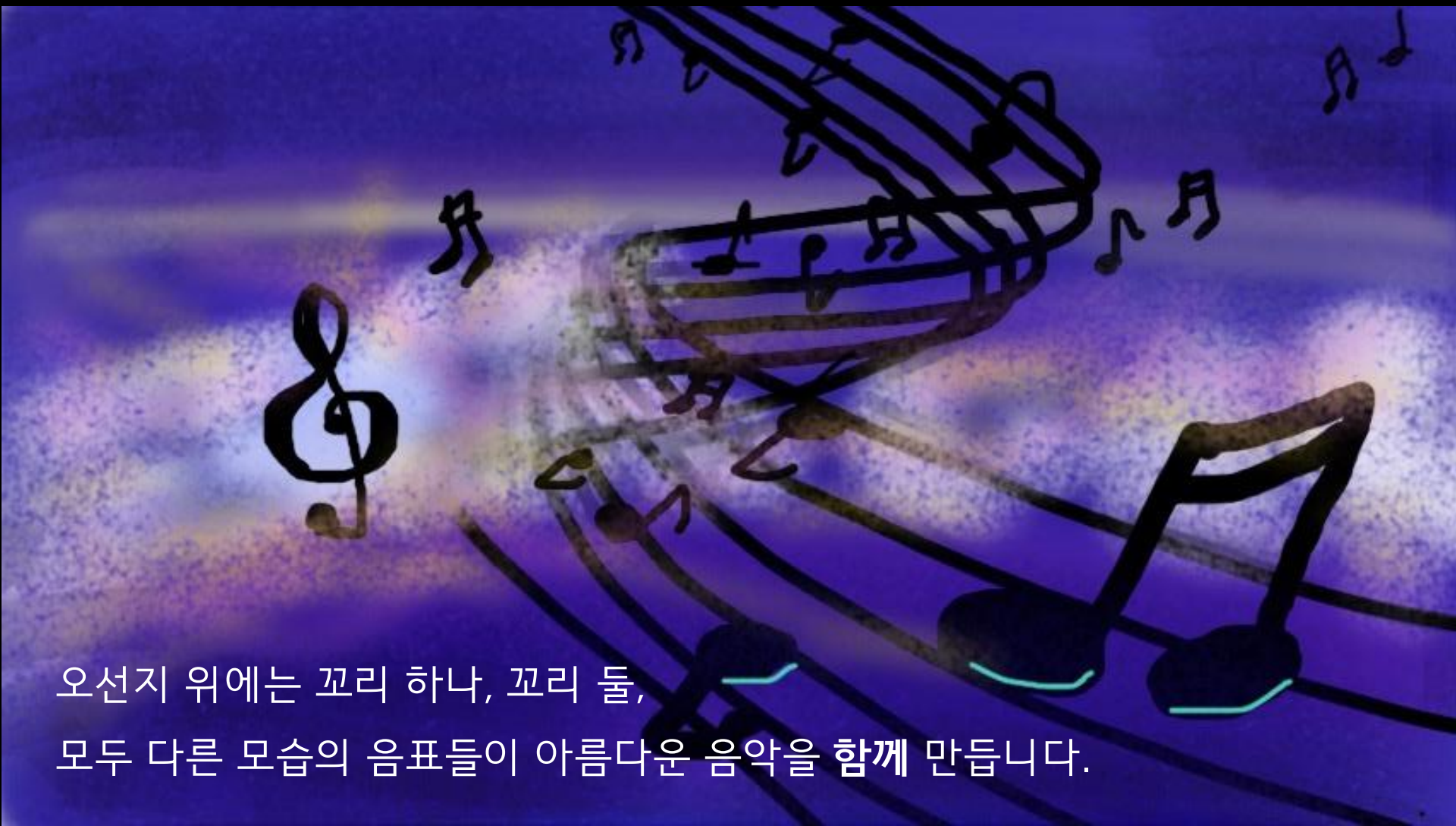
뿌아는 우주를 둥둥 떠다니며 신기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도 계속 슬퍼보이네요...

그렇게 터덜터덜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새까만 길을 마주칩니다.  
"앗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보니..



그 길은 하모니오스별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거대한 오선지 악보였습니다.





오선지 위에는 꼬리 하나, 꼬리 둘,  
모두 다른 모습의 음표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만듭니다.

손을 맞잡으니 화음이 들립니다.  
'랄랄라~'





그 때! 따라오던 캐로티와 오동이가 미끄러져  
음표들을 밀게 되고, 음표들이 엉키며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됩니다.  
'삐익, 삐이이'

음표들은 서로를 탓하며 투닥거립니다.  
“너 때문이야” “아냐 너 때문이야!!”



소란스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본 쌀밥 뿌아는  
뒤따라오던 캐로티와 오동이를 발견합니다.  
“앗? 너네 왜 여기있어?”



뿌아는 잠시 화가났지만 다시 예쁜 음악소리가 나도록  
캐로티와 오동이와 힘을 합쳐  
음표들의 손을 맞잡게 하고 화해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같이 마음을 합해 한 발 한 발 맞추어 움직이니  
금새 다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 집니다.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어느새 기분이 풀린 뿌아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갑니다.



떠다니던 별들도 날아와  
뿌아의 웃인 그릇을 예쁘게 색칠해 주고,



뿌아와 친구들은 더욱 신이 납니다.



“우리 조금 더 멀리 가보자!”



“따라와!”



음악에 맞춰 춤추며  
즐겁게 걸어갑니다.  
'룰루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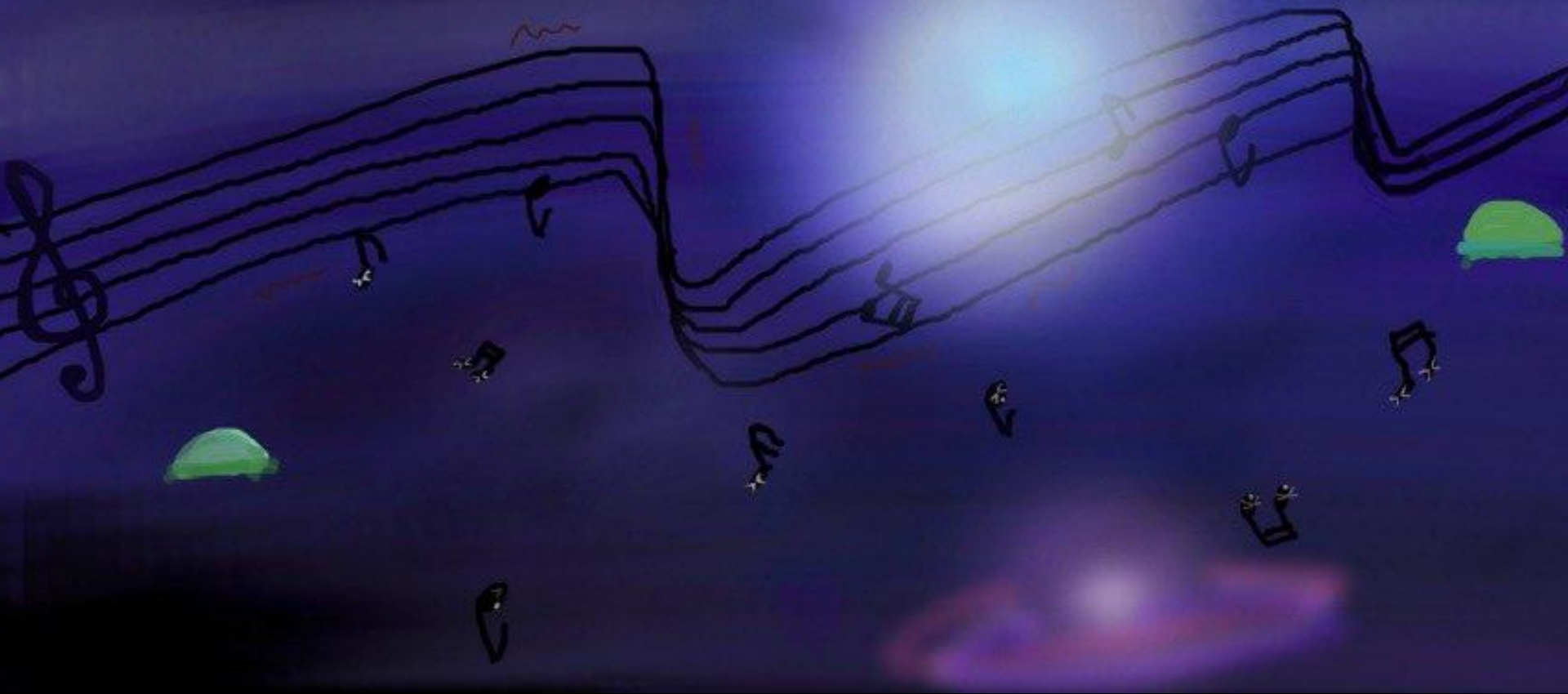
새로운 친구들도 만납니다.  
“모두들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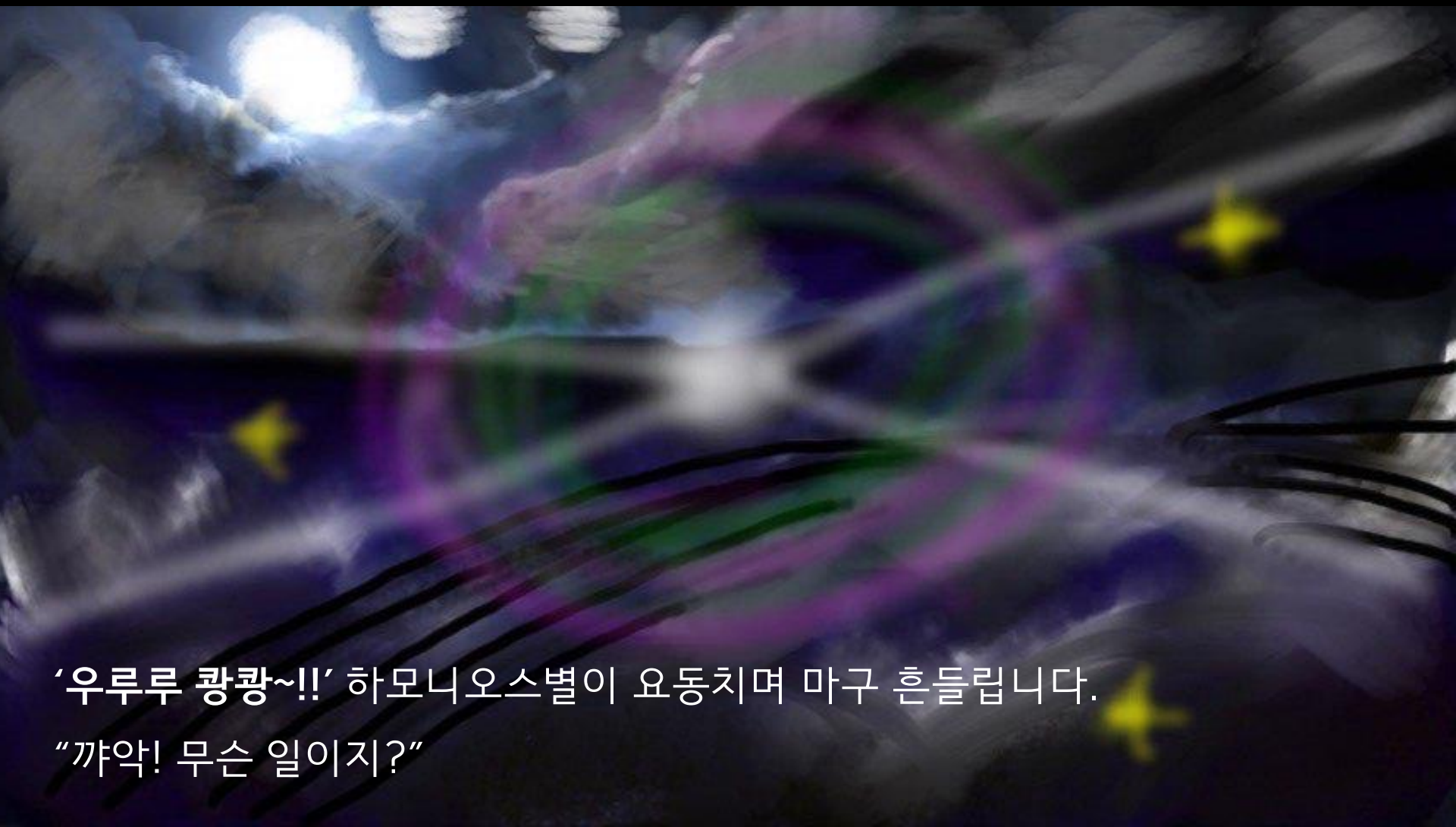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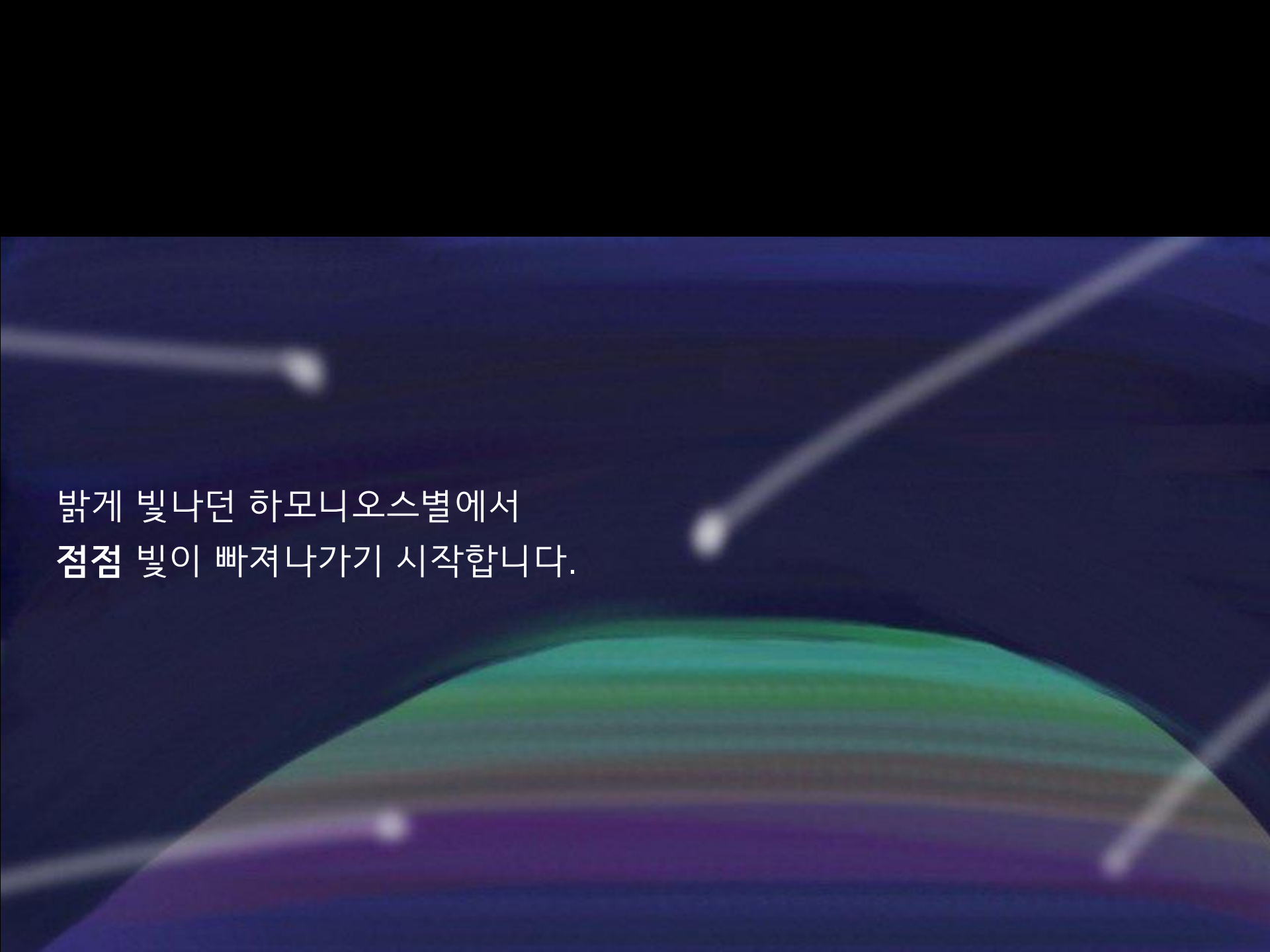
하모니오스별이 가장 행복할 때 나타나는  
신비한 물고기떼도 만나며  
어느새 뿌아는 토라졌던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모두 행복하게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이 흔들리면서 음표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루루 쿵쿵~!!’ 하모니오스별이 요동치며 마구 흔들립니다.  
“까악! 무슨 일이지?”



밝게 빛나던 하모니오스별에서  
점점 빛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모니오스별은 점점 아무런 규칙 없이  
못생기게 변하고 찌그러집니다..





“으아악~!” 넘어지면서 간신히 매달린 쌀밥 뿌아를  
오선지 루루가 발견합니다.



캐로티와 오동이도 간신히 오선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악 살려줘~~~!!”

오선지 루루가 매달려있는 뿌아에게 말합니다.

"넌 누구니? 잡지 마! 나는 떠날거니까!"

"떠난다구? 왜?"



“나는 고작 음표 뒤에 있는 배경일 뿐이잖아.

사람들은 음표만 바라봐. 아무도 내가 있다는 것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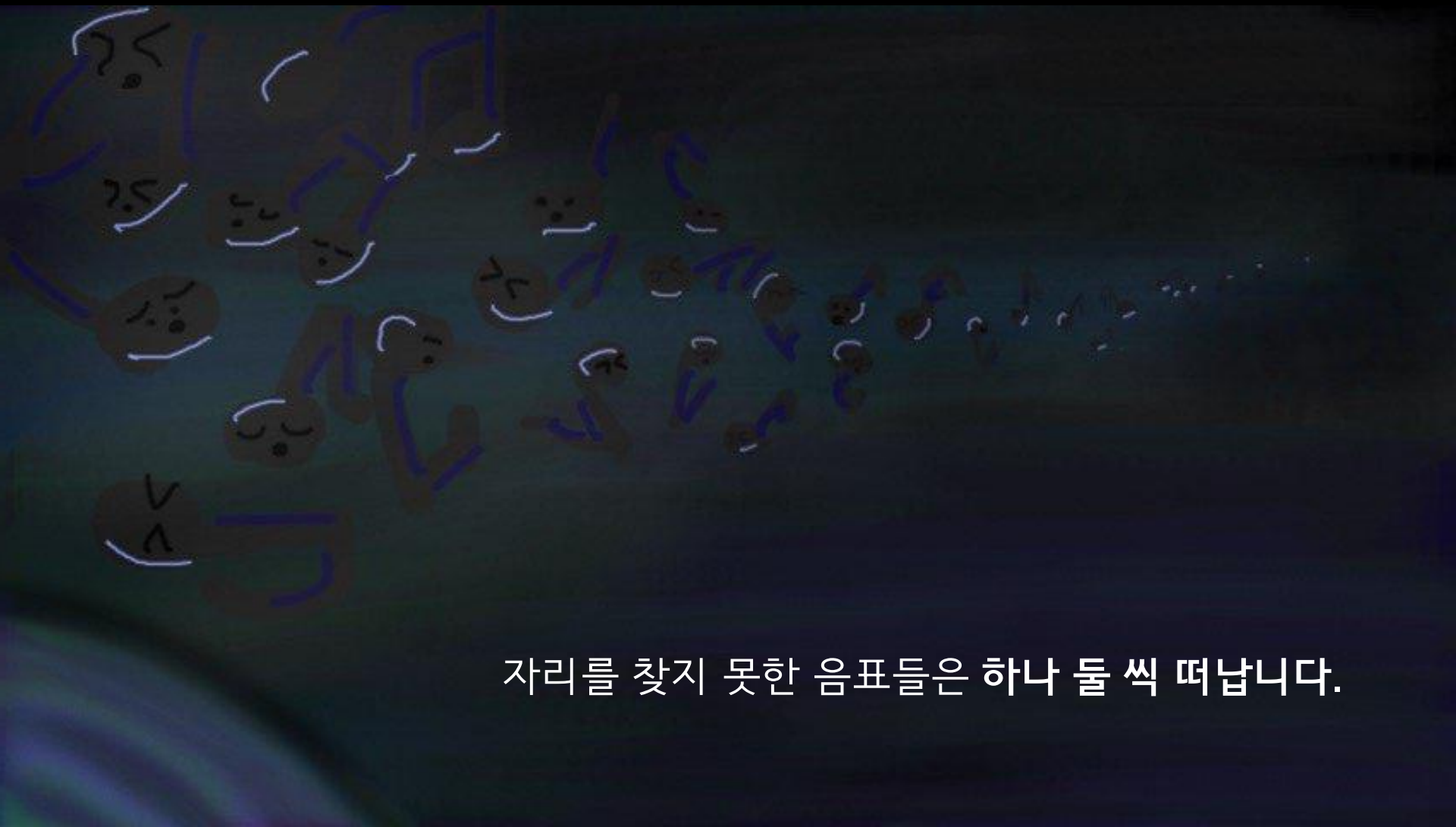
그 말을 들으니  
뿌아는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며 잠시 슬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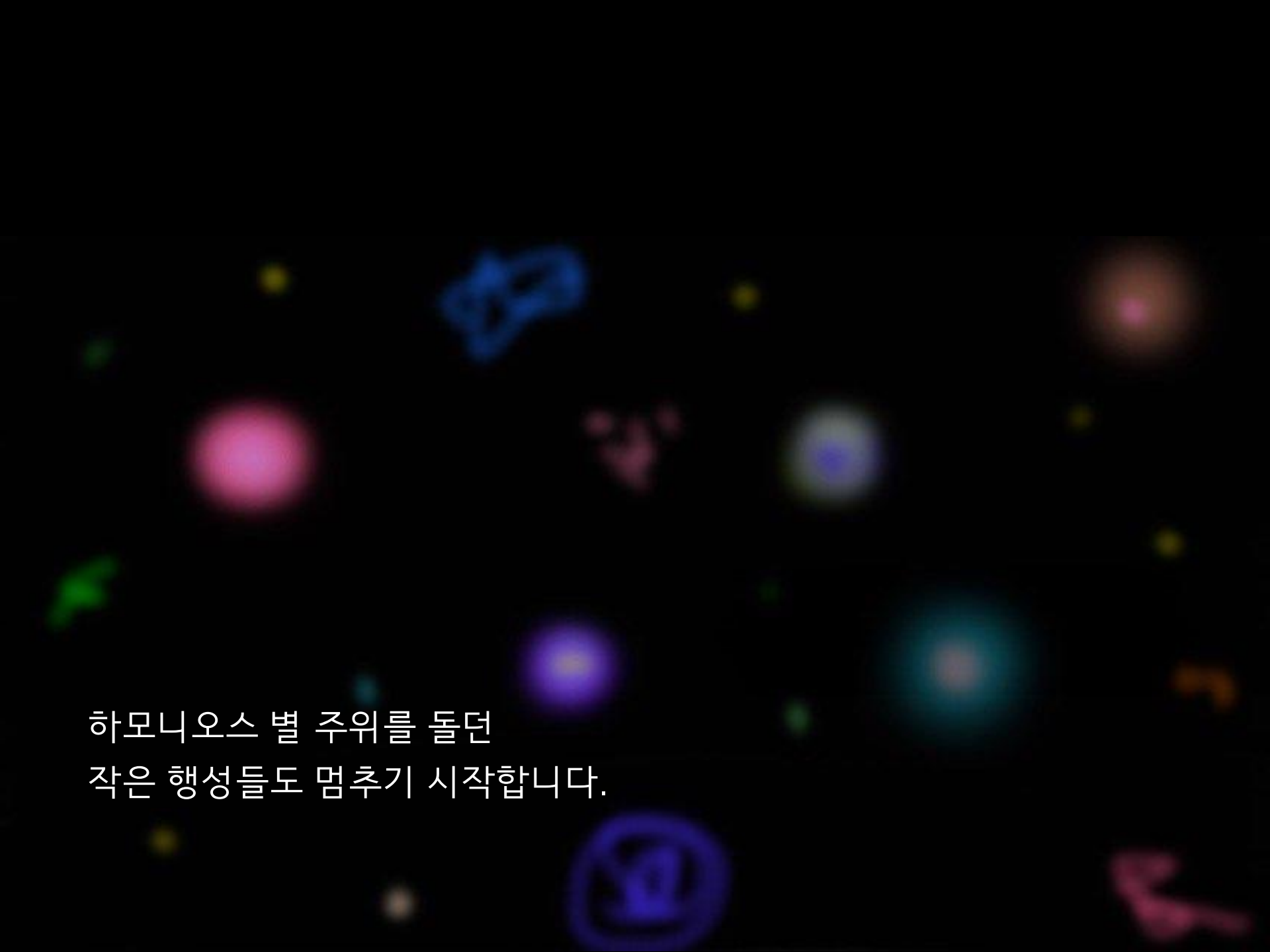
그러던 사이 오선지 루루는 떠나버리고.  
뿌아와 오동이, 캐로티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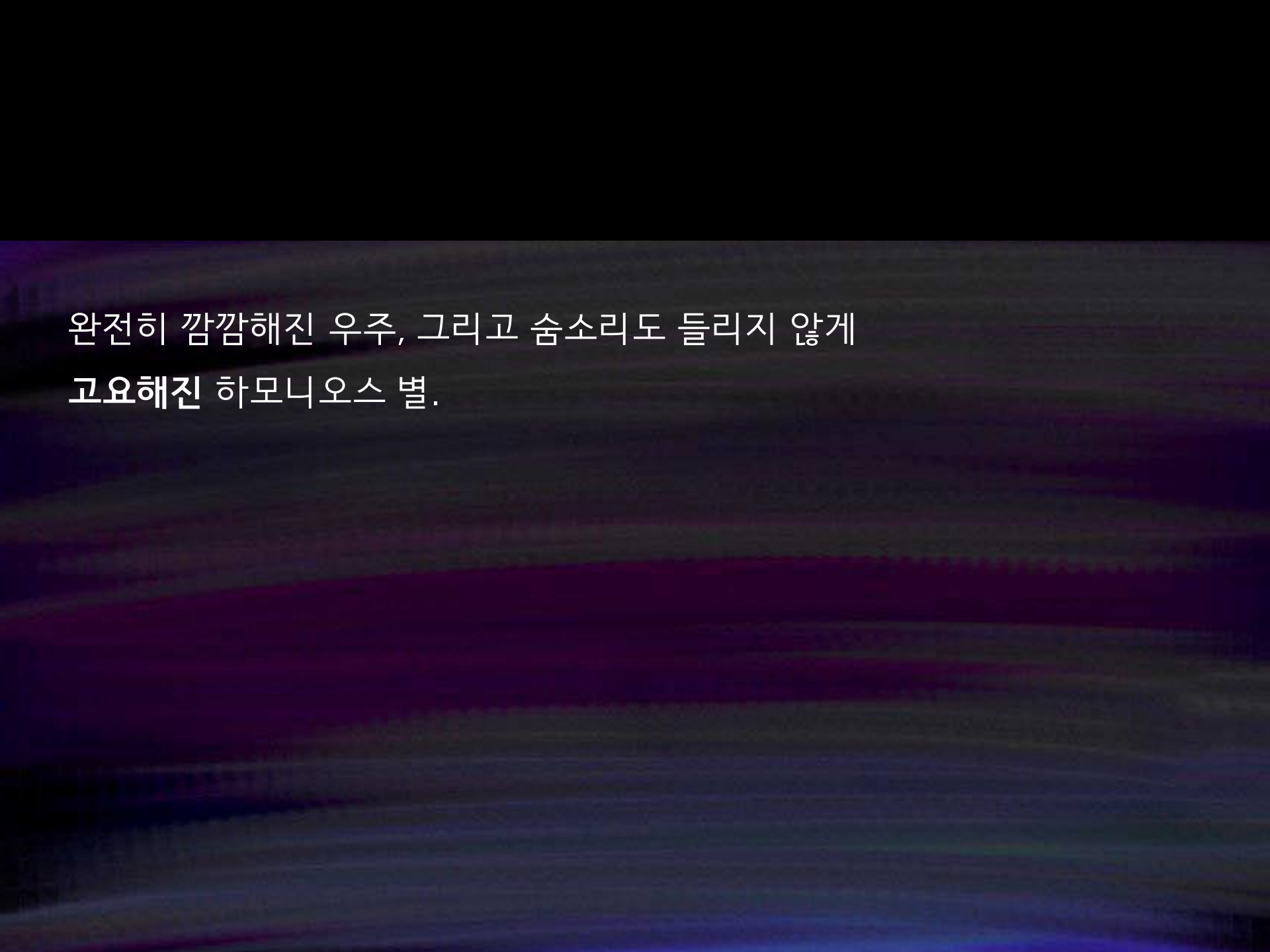
자리를 찾지 못한 음표들은 하나 둘 씩 떠납니다.



하모니오스 별 주위를 돌던  
작은 행성들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음악은 점점 사라져가고, 음악이 없어 고요해진  
하모니오스별의 사람들은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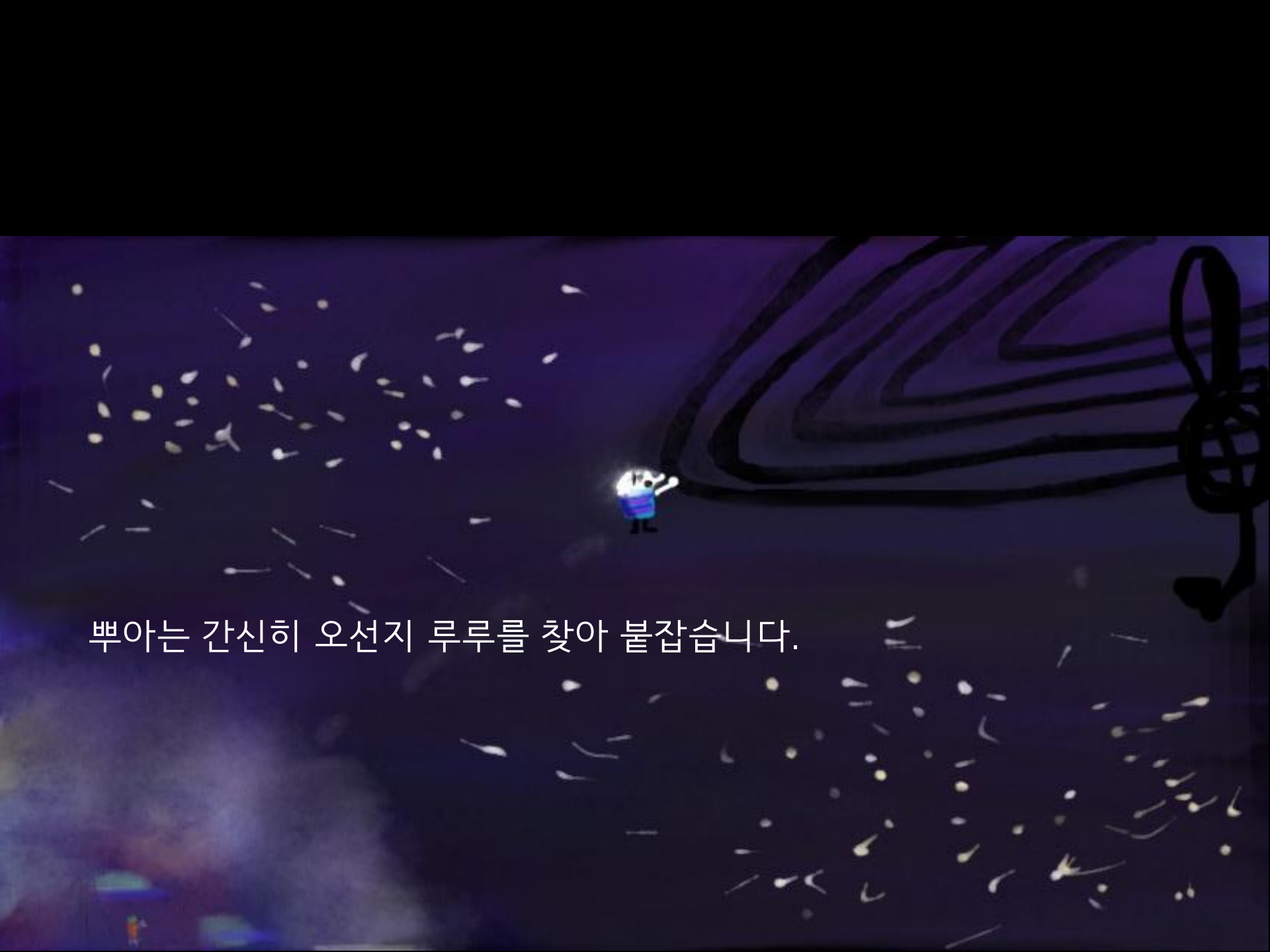




완전히 캄캄해진 우주, 그리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고요해진 하모니오스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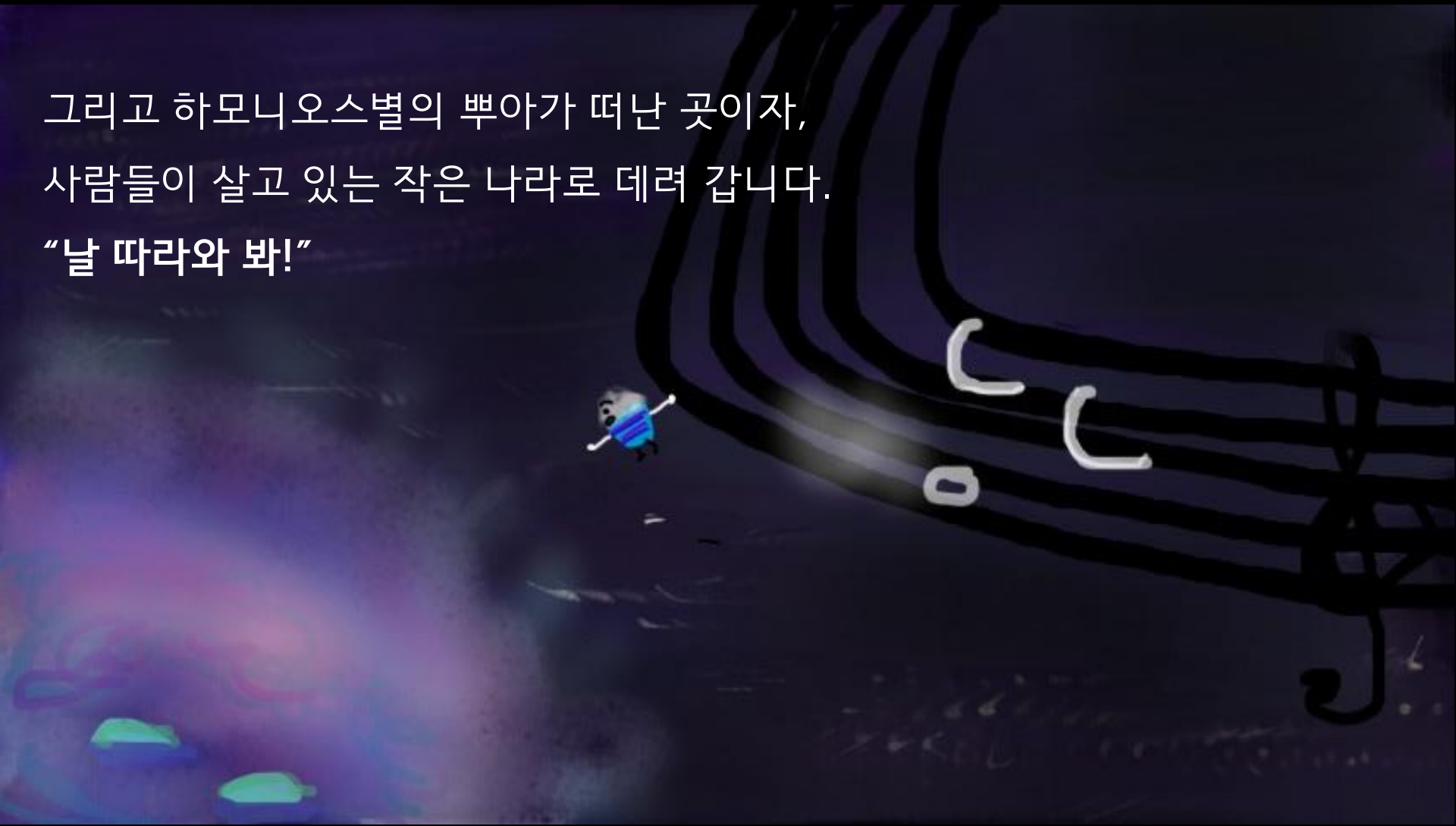
뿌아는 깜짝 놀라 재빨리 오선지 루루를 따라 갑니다.  
“가지마 ! 기다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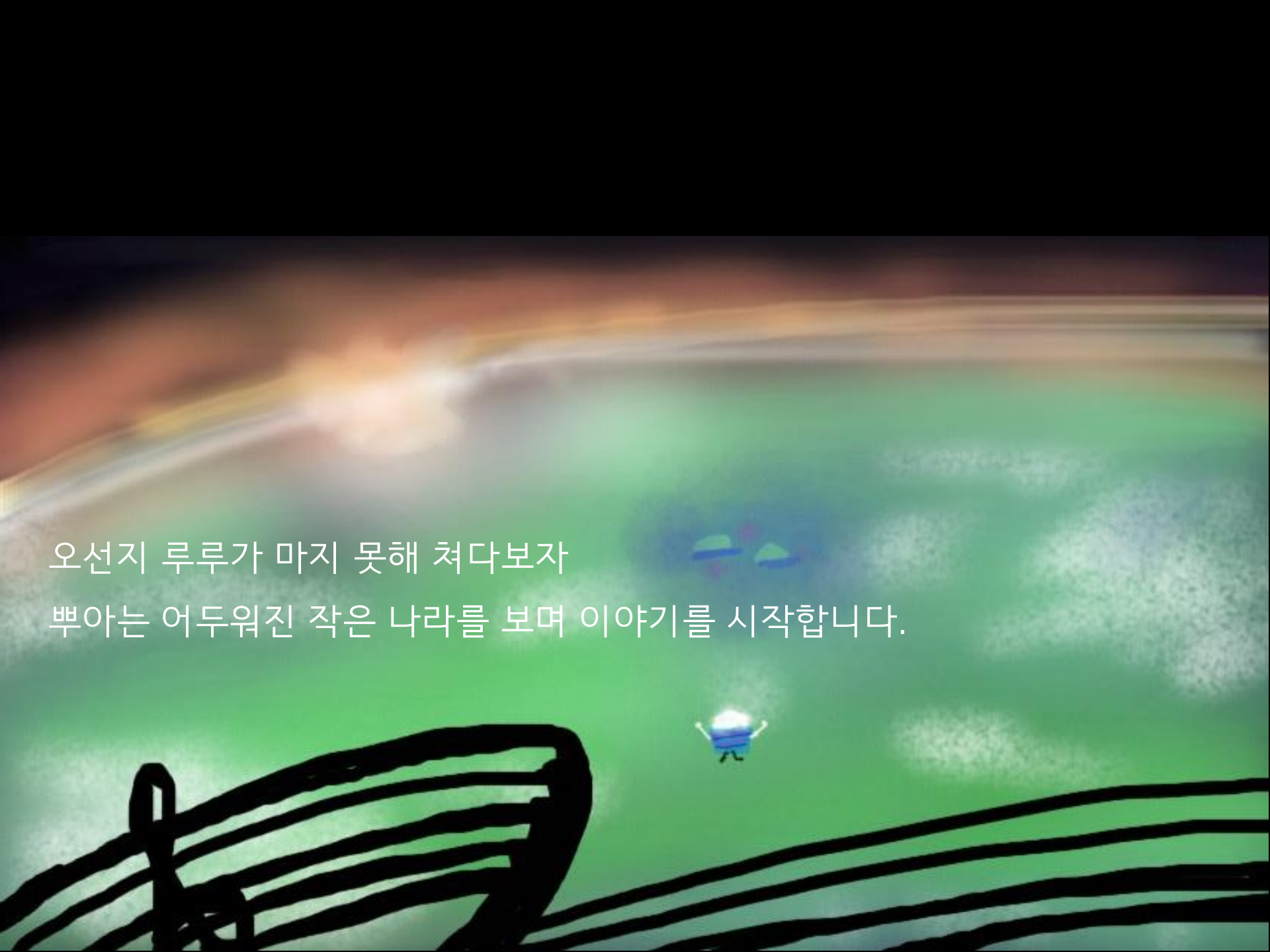


뿌아는 간신히 오선지 루루를 찾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오스별의 뿌아가 떠난 곳이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나라로 데려 갑니다.

“날 따라와 봐!”





오선지 루루가 마지 못해 쳐다보자  
뿌아는 어두워진 작은 나라를 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난 저기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얗고 예쁜 쌀밥이었어.”

“어릴 때 부터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난 햇님의 따스한 사랑도 듬뿍 받고,”



“바람의 거침없는 사랑도 듬뿍 받고,”





“빗물의 촉촉한 사랑도 듬뿍 받고,”



“사람들은 매번 잘 자라는 내 모습을 보고 행복해 했어!”



“나는 정말 튼튼하고 멋졌거든!”

“나는 인기 스타였고, 모두 나를 부러워했어!”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예쁜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한거야!  
노란 콩나물, 파란 애호박, 빨간 당근, 통통한 표고버섯, 날씬한 콩나물,  
힘찬 흙의 색깔 고사리까지...”



뿌아는 점점 비빔밥이 되며  
배경이 되는 것 같아 슬퍼집니다..





“나는 화려한 친구들과 함께 더 큰 그릇에 담겨  
더 예쁘게 보여지게 되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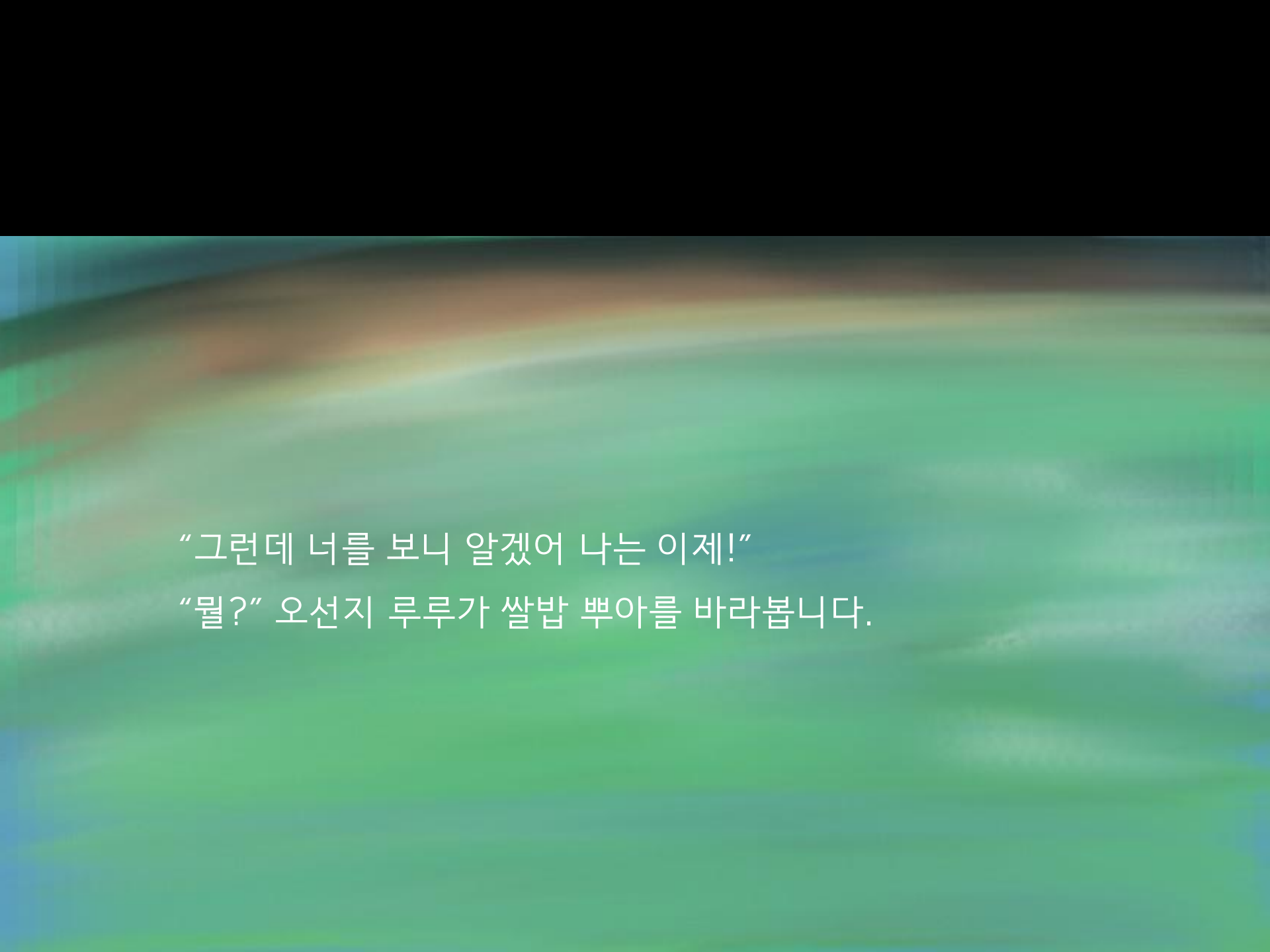
“사람들은 예쁜 친구들에 감탄하며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난 떠나기로 결심했던 거야.”



생각에 잠겨 하모니오스별을 내려다 보는 오선지 루루와 쌀밥 뿌아.  
그리고 뿌아는 문득 부끄러워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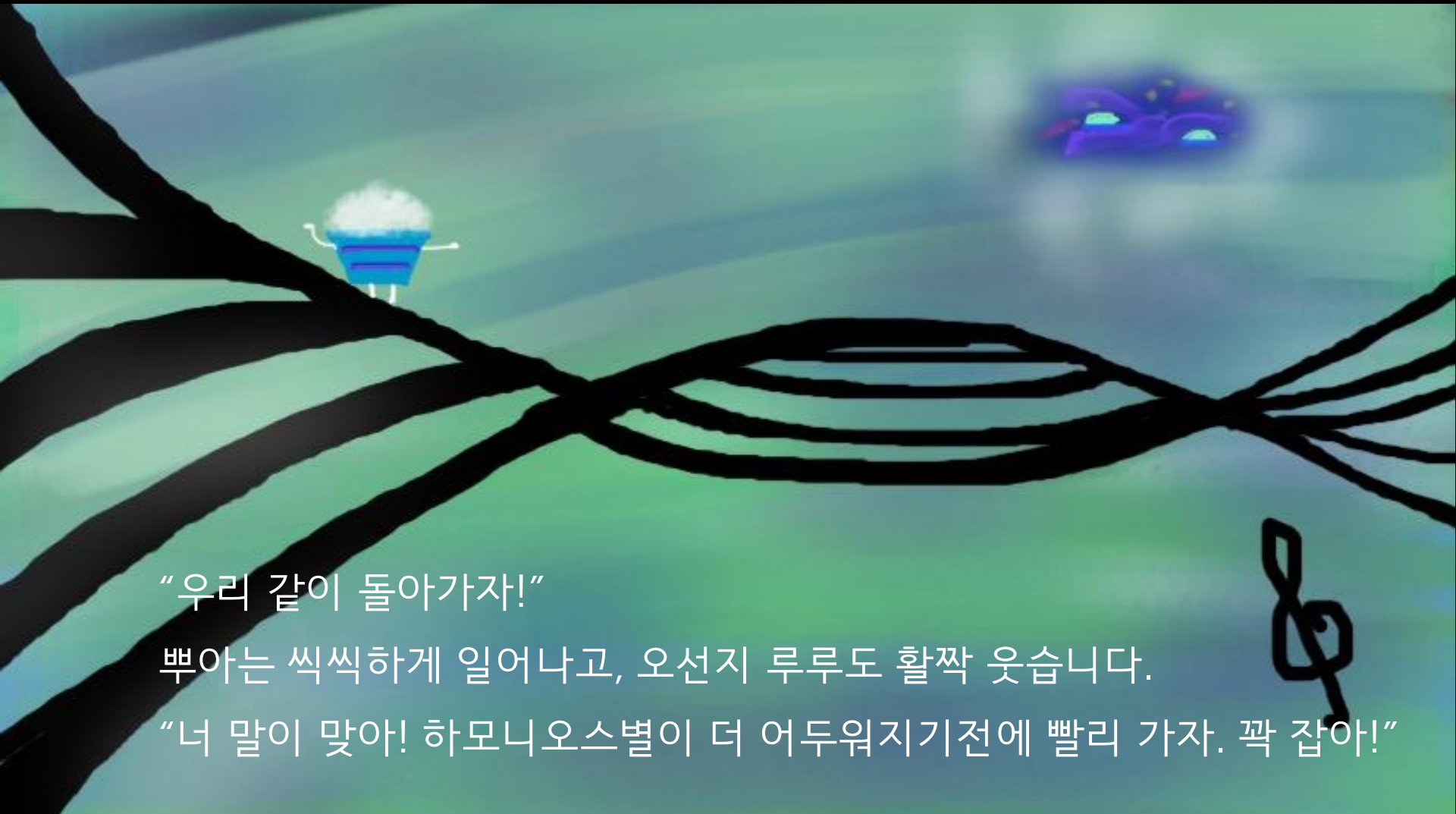


“그런데 너를 보니 알겠어 나는 이제!”

“뭘?” 오선지 루루가 쌀밥 뿌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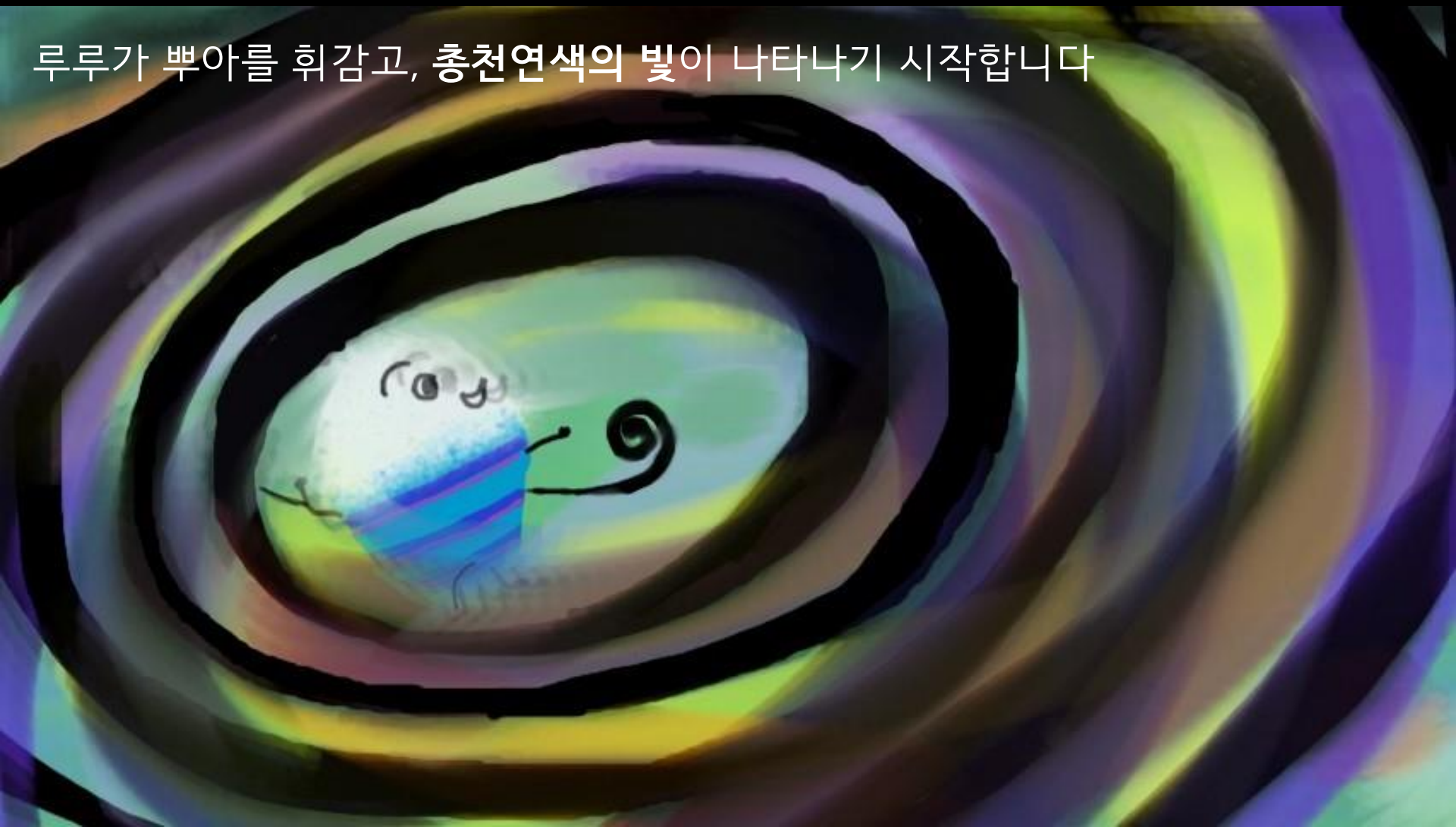
“우리 같이 돌아가자!”

뿌아는 씩씩하게 일어나고, 오선지 루루도 활짝 웃습니다.

“너 말이 맞아! 하모니오스별이 더 어두워지기전에 빨리 가자. 꼭 잡아!”



루루가 뿌아를 휘감고, 총천연색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깜깜하던 하모니오스별에 오선지 루루가 나타납니다.



The image features a solid black background. On the left side, five parallel white lines curve upwards and to the right, creating a sense of motion or a stylized horizon. The lines are of uniform thickness and are spaced evenly apart.

루루가 어둠을 밀어냅니다.

루루가 춤을 춥니다



빛이 점점 크게 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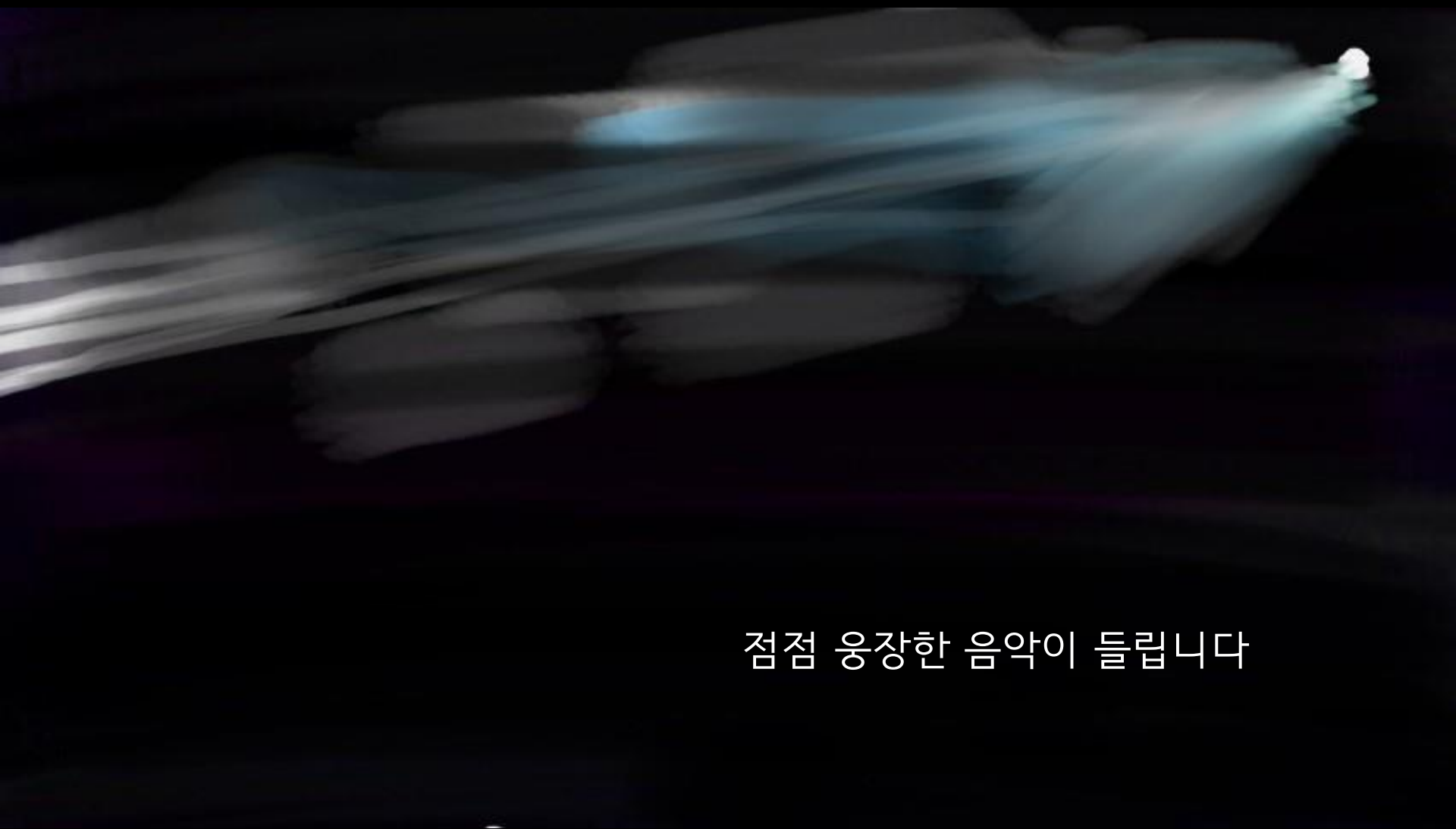
‘휘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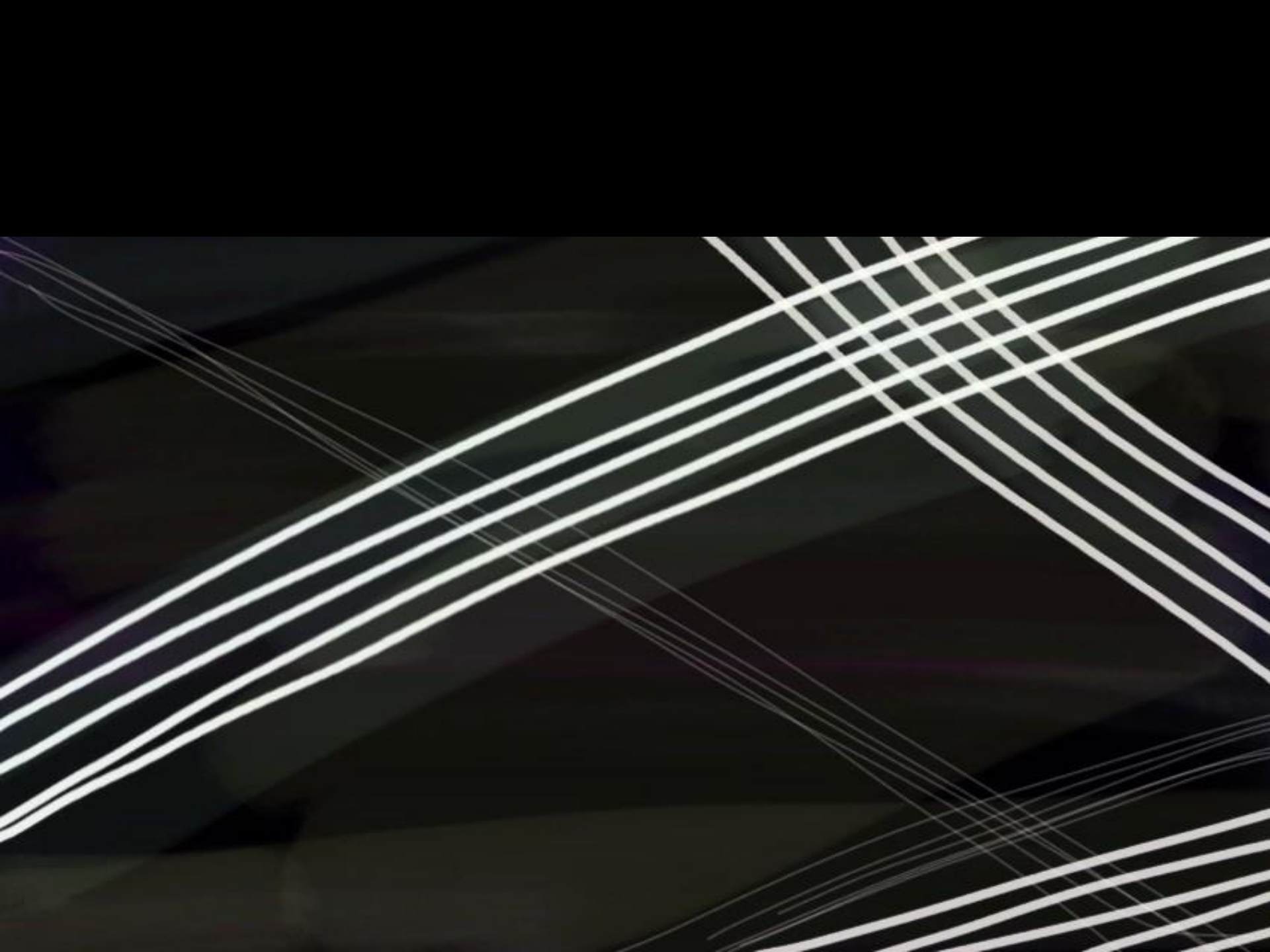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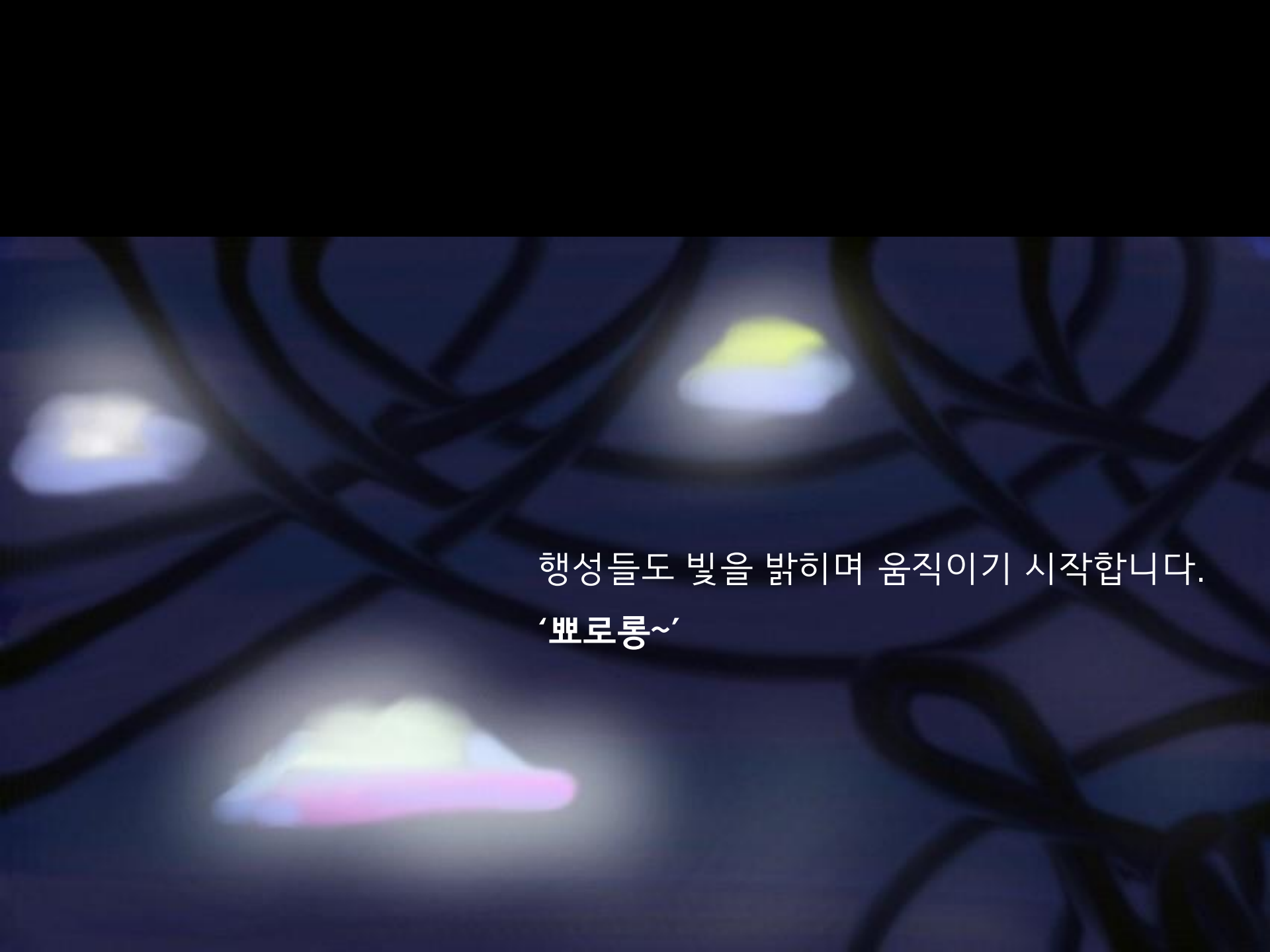
점점 웅장한 음악이 들립니다

까맣게 그림자가 되었던 하모니오스별의 곳곳이  
오션지루루가 만드는 빛으로 점점 밝게 비춰집니다.









행성들도 빛을 밝히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뽀로롱~'

루루가 빙글빙글 도는 곳마다  
예쁜 색깔이 반짝반짝 나타납니다







루루와 행성들이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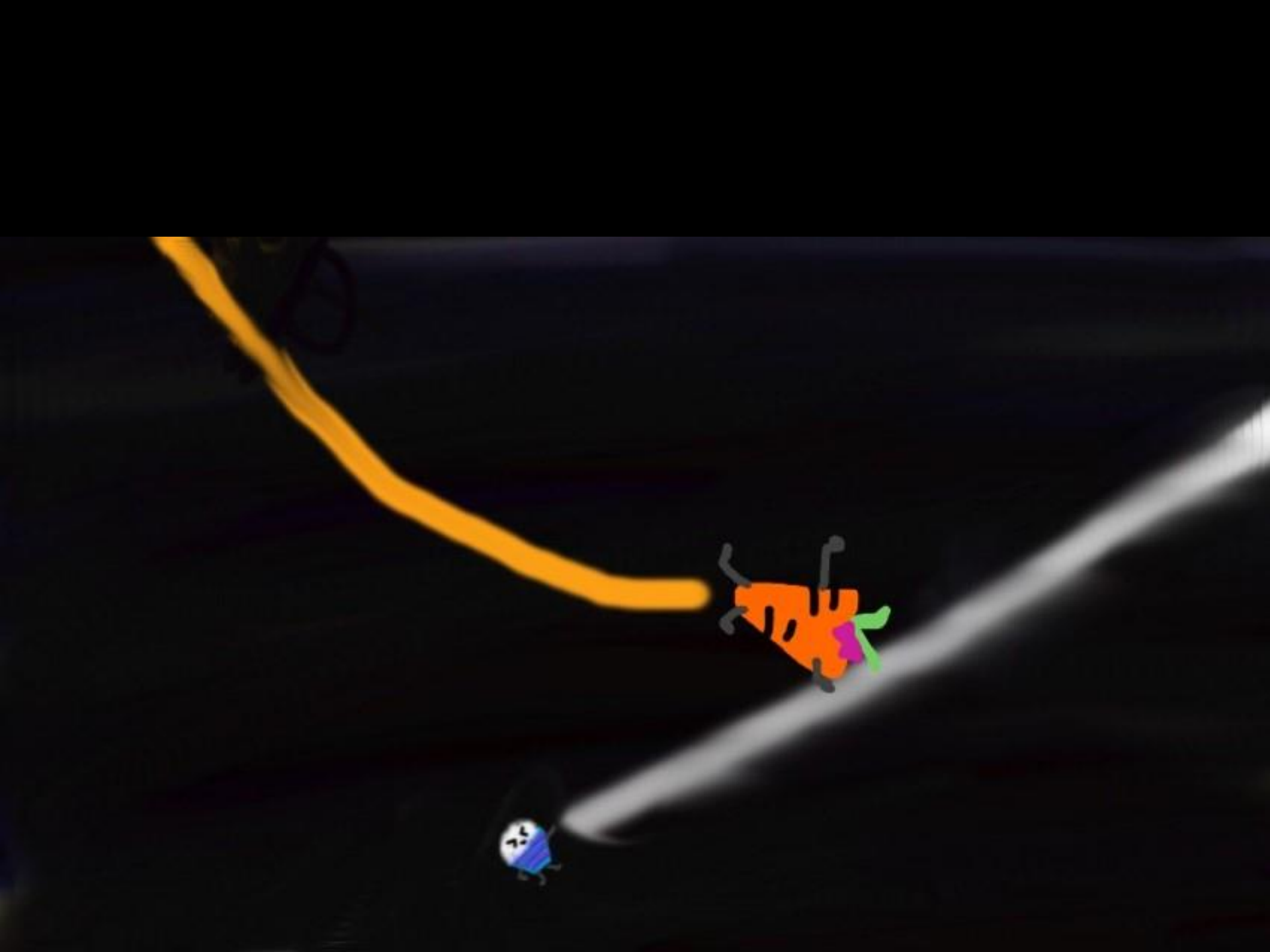
뿌아와 하얀색 빛이 들어옵니다.



캐로틱와 주황색 빛이 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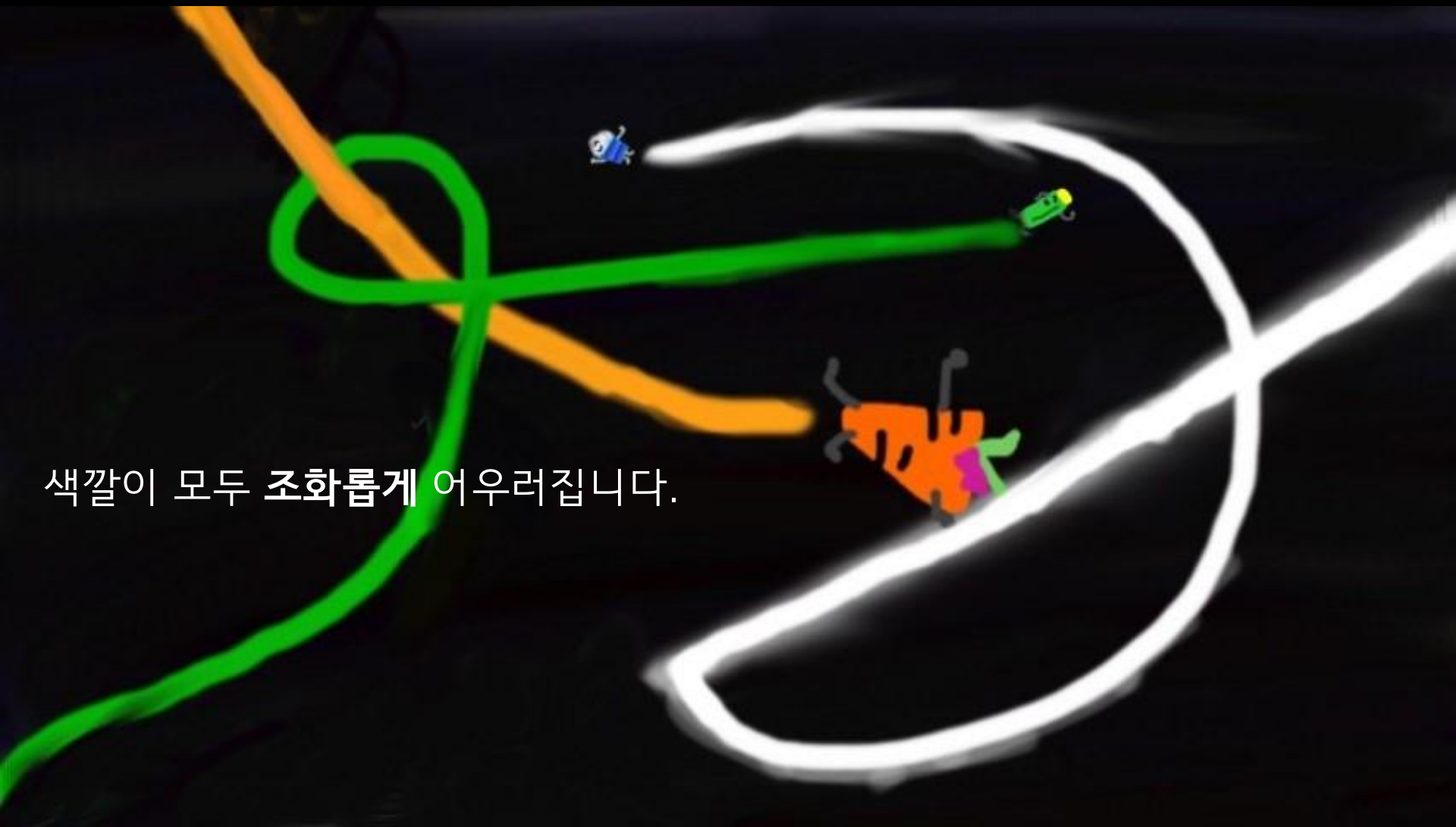


오동이와 초록색 빛이 들어옵니다.





색깔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오선지 루루와 음표들이 날아와  
뿌아, 오동이, 캐로티를 감싸고 빙글빙글 돕니다.



모두의 색깔이 합쳐지면서 은하계처럼 어우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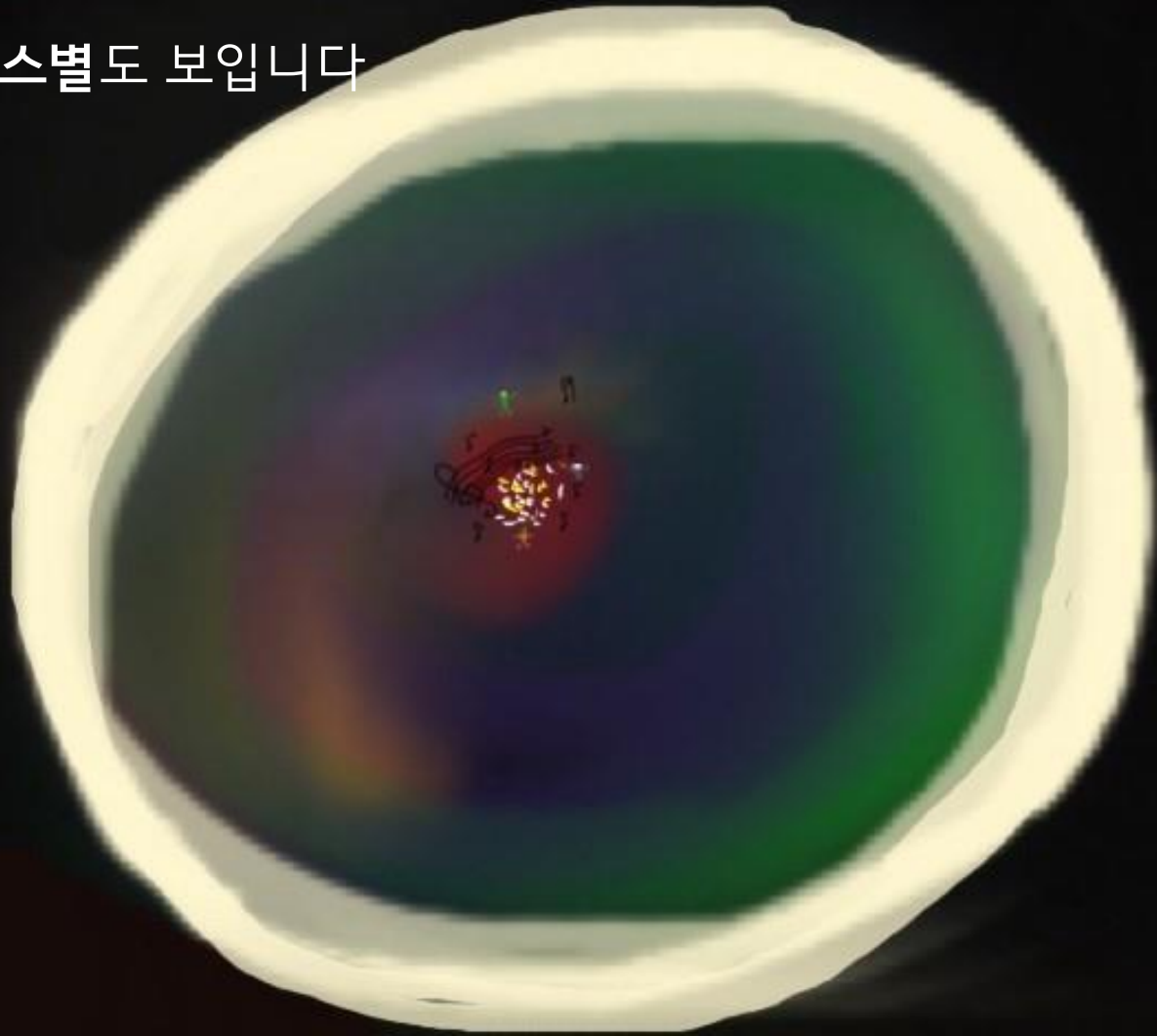




어느 식탁 위 밥그릇 안에 상상우주가 보입니다.



저 멀리 하모니오스별도 보입니다



‘딸깍’

밥그릇 뚜껑이 닫힙니다.







오선지 루루와 쌀밥 뿌아는 하모니오스별로 돌아가  
서로의 모습을 닮은 예쁜 음악, 예쁜 비빔밥을 만들며  
함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 C O N T A C T

---

[www.bbuatherice.com](http://www.bbuatherice.com)

[bbua.rice@gmail.com](mailto:bbua.rice@gmail.com)

Seoul: +82 10-8318-0805 (Jeong Jin Kim)

San Francisco: +1 510-248-9327 (Soo Jung Kwak)